

BAZAAR

TALKING POINT

<년말> 2019



글림의 세계

문성식의 그림은 금처럼 읽힌다. 서정시와 같은 연필 드로잉은 벽화처럼 생명력이 날뛴다. 선으로 짜여진 인간과 세상에 관한 연민이 침울 더해 특직한 모습이 되었다.

ART

전 시 제목인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 참 안 어울리면서도 어떤 지남력이 있는 단어를 모았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물도 있고, 똥, 오줌까지 물로 되어 있다. 물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에 그런 층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꽃도 아름다운 속에 두지만 결국 사들고 소위 말해 예쁘지 않게 된 다음에 흙이라는 먼지로 돌아간다.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물이 된 지름이 된지 결국은 제대로 알 수 없다.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임과 동시에 미비한 존재다. 이런 희한한 느낌을 형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골랐다. 초창점으로 각개본 그림을 전시장에서 직접 봤을 때 멍찔했다. 꽃과 나비들 사이에 벌레가 있고, 표면은 벗겨진 페인트처럼 떨어져 내릴 것 같았다. 꽃은 피가 똑똑 떨어질 것만 같은 선지처럼 보이기도 했다. 꽃이 핀 모습을 나비가 날아와 수정을 하길 바라며 성기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성기라고 인식했을 때 예 오는 충동, 약간 동물적인 냄새를 만들고 싶었다. 일부러 생각을 염두에 두었

다. 피와 생각, 그 색을 만들기 위해 장미를 일할 때 감정을 많이 받았다. 밝은색을 칠해서 중립시키니 명든 것같은 느낌이 생겼다.

직업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똥'이다. 끈중이 꽃에 이끌리는 현상, 이산 가족이 손을 부여잡고 당기는 피의 요동처럼 근원적인 끌림에 대해 다룬다.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에서 두 물체가 있으면 붙는다고 하는 것, 그게 섬리인데 왜 붙는지 궁금하지 않나? 가족,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있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내 몸에서 나는 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본능적으로 똥 먹고 취하는 것은 실리라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게 똥똥이다. 왜 인간은 꽃을 좋아하지? 장미한테 이끌리는 내 모습에서부터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다. 우주가 돌아오는 사이클은 이런 사소한 당김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미물들한테도 내재되어 있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새로운 스타일인 '스크래치 기법'은 연필 드로잉과 유화의 합치, 끌어내는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다. 큰 변화다. 10여 년 전 실익은 작가로 시작했다.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절박하게 갈구하게 된 것은 대체불가능한 나다움이다. 초기 드로잉 때도 빛 보르코 추구했지만 미술 신으로 들어오면서 자유로움을 잃기도 했다. 갈등하고 괴로워하다 결국 최초의 드로잉적 호움을 가지고 와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춤을 쉬듯 모양이 다 다르듯 나만의 신으로 내 패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지금까지 페인팅과 드로잉을 분리해왔다면 신이라는 요소를 합치려고 고민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본 사구의 고전과 동양 혹은 중간 지대에 있는 고전에서 힌트를 얻었다.

구도는 동양화의 그것이고, 색채와 길잡은 마치 서양의 오래된 벽화 같다. 전통과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한 이유가 있다. 세계 미술의 경향이 서구 중심적이다. 아프리카, 그리스 미술 모두 훌륭하다. 하물며 조선의 미술은?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함이 있었다. 내가 이걸 누락시키고 가는 게 맞는가 생각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된 지금을 살아가면서 동양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잇는 방법을 갈구하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인도나 이집트, 페르시아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흡수할 것이다. 새로운 화면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위받되는 예술이 먼저가는 신에서 드로잉을 확장시키려는 행보는 반갑다. 모든 예술은 시의 혹은 자기가 속한 도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는 기법이나 정서를 외부에서 알아듣지 못할만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고유 스타일, 저 밑에서부터 뿜아 올려 화가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은 다른 것 같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술에 근거가 없을 때 공허함이 따라온다. 도대에는 이 사회의 모든 시대정신과 정서가 들어 있다. 앞으로 도대를 바탕으로 내 의지를 담은 방법론을 찾을 것이다. **박지민/박지민**

※ 문성식 개인전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Beautiful, Strange, Dirty.)은 12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젊은 예술가의 입문

사전에 대한 예민한 감도와 독특한 예술 언어, 오스카바 출신의 팀 파르치코프는 젊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에게 성장형 동행했을 때 마드 스펀에서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날 선 감각일 것이다. 러시아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팀 파르치코프는 그러한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한다. 본래 영화를 전공한 그는 현대 자본주의 속에서 문제를 감지한 뒤 그것을 특유의 불쾌 코미디로 표현한다. 사진 연작 <벵타는 뉴스(2011~2013)>와 영상작품 <눈사람(2012)> 속 피사체는 자신의 손이 터져가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정보에 함몰된 현대인의 모습 그 자체이며, 대체로운 색깔의 사진 연작 <비현실의 비너스(2011)>에는 정작 아름다운 여인은 외딴방은 관광 도시의 쓸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독특한 미감으로 2013년 칸던스키 상 '베스트 영 아티스트' 무문을 거머쥐며 비주류 아티스트로서의 명모까지 인정받은 그는 베너스 비엔날레와 파리 폼미두 미술관에 연달아 초청받으며 존재감을 키워다. 폭스바겐, 루이비통 등 상업 브랜드와의 과감한 협업 역시 젊은 예술가다운 개방적 행보다. 국내에는 2018 대구 사진비엔날레에 참가하며 인사를 건넨 바 있는 그가 이번엔 국내 첫 개인전 <Burning News & Unreal Venice>를 선보인다. 정소는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하고 도발적인 현대미술가를 초영양해 온 궁극적 갤러리. 2월 2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에서는 팀 파르치코프의 사진, 연작, 설치미술 등 2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에디터/박지민**

